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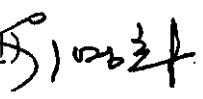
2007.9.

수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목 : 하소지역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

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
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 별첨 : 1. 의원서명서 1부
2. 하소초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한 건의안 1부

발의자 : 유 영 화 의원 (인) 
외3인

(찬성자 서명 별첨)

『하소지역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

발 의 서 명 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최기재	최기재	
성명중	성명중	
김명섭	김명섭	
강현섭	강현섭	

「하소지역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1186
----------	------

발의 년월일 : 2007. 9. .

발의자 : 유평화의원 외 3인

1. 주문

- 하소동 신규아파트단지 주거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아파트단지 조성으로 2008년까지 1,800세대가 입주하며 단독세대까지 2000여 가구의 대단위 주거단지로 초등학교 설립이 꼭 필요 합니다.
- 거주세대가 향후 증가 예상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어린이 보호 및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현 학군상 남당초등학교로 지정되어 등.하교시 6차로 및 4차로 및 교량구간을 통과하므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으며
- 교통사고 위험 및 불편을 사유로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 교통사고위험이 적은 의림, 동명, 중앙초등학교 등으로 원거리의 불편을 겪으며 통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제안이유

- 2006년부터 하소동 지구에 신규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학령아동이 늘고 있으며 학군이 대로와 교량과 대로를 건너서 등.하교를 해야 하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
- 아파트 단지부근에 도시계획 된 초등학교 예정용지에 조속한 시일내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평생학습 도시답게 꿈나무들의 등.하교 시의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초등학교 설립을 바랍

「하소지역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서

충청북도지사님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충청북도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님

도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사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오장세 도의회의장님 그리고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용 도교육감님과 성영용 도교육위원회의장님께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천시는 자유무역시장 개방 후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 살림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이를 극복하고자 종합연수타운 건설과 2010년 한방엑스포 개최 등 지역의 생존전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천시는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전시민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도시로써 시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모아 아래와 같이 초등학교 설립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하소동 신규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들에게 통학에 안전한 초등학교를 꼭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하소동에는 2002년부터 신흥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하소청구아파트 498세대 제천코아루 318세대 그린코아루 702세대 등 1,518세대가 살고 있으며 2008년에 하소현대 홈타운 358세대가 입주하면 아파트단지 내 세대만 1,800여 세대가 되고 인근지 천남동 단독주택 세대를 합하면 2,000여 세대가 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서 초등학교 설립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염려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차량통행이 많은 제천시 관문 진입도로의 편도 3차선 도로와 편도 2차선 도로와 교량이 연결되어 있고 차량이 속도를 내어 달리는 지점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 지역이며

인근의 초등학교는 약 3km 거리에 용두초등학교가 있으나 37학급 1,250명의 학생이 있어 초등학교로써의 학급증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편도 3차선 도로와 편도 2차선 도로와 교량을 건너 2km 지점에 남당초등학교로 학군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로변 차량이 속도를 내는 도로로써 인도와 신호등은 설치가 되어있다고 해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주거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도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소동과 천남동 지역은 신흥아파트 건축지역으로 앞으로 제천의 도시발전이 될수록 이 지역에 대한 주거인구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한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대로를 건너지 않는 주거단지 주변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여 제천시 도시계획상 하소동 10-2번지에 학교용지를 지정하여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우택 도지사님, 오장세 도의회의장님,
이기용 교육감님, 성영용 교육위원회 의장님!**

하소동 지역은 제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학부모들과 제천시민들은 초등학교 설립을 간절히 바라며 제천시의회의원 전원이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건의하오니 필히 초등학교 설립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 9. .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청 원 서

존경하는 최 중 섭 제천시의회 의장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하소동 그린코아루아파트에 거주하는 제천시민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단지의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 신설을 부탁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단지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용두초등학교 그리고 남당초등학교 등입니다.

그러나 용두초등학교는 과밀로 인하여 전학 등이 불가능하며 남당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원거리일 뿐만 아니라 교통이 혼잡하여 특히 저학년 어린이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모두 늘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702세대인 우리 단지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한 하소동 코아루 아파트의 318세대, 내년 2월 입주예정인 하소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358세대 그리고 신동 및 천남동 일부지역의 약 200여 세대 등 총 1,600여 세대의 제천시민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마을에는 초등학교 취학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약 8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도시계획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충북 제천시 하소동 10-2번지 등의 학교예정용지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통학 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하루 빨리 신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9월 27 일

그린코아루아파트 107동 1404호 나 성 원



※ 불임 : 청원인 명단 1부